합리적인 광고시장 조성에 힘쓸 터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고인 모두에게 갑오년 한 해 청마의 건강과 슬기와 질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광고비 성장이 정체된 한 해였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광고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매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광고계는 2014년도 도전과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로 전년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고, 2월의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인 시각과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광고환경 조성과 광고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광고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론보도닷컴의 활성화와 언론 등록을 통해 유사 언론행위를 일삼는 인터넷신문을 견제하고, 매체력에 입각한 광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방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고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매체 초청 간담회를 비롯하여,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과 광고주대회를 통해 기업의 광고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행동이 진취적이고 성격이 온순하여 사람과 교감을 잘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영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A

2014년 1월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 정 치**